

# 세계 불교영화 한자리에

## 'WIFF 2008' 내달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서

세계의 불교영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2회 불탄(佛誕) 국제영화제(Wesak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하 'WIFF 2008')가 6월 14-15일, 21-22일 두 차례 열린다.

2006년 첫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고무된 WIFF조직위원회는 금년에도 불교를 주제로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및 아동용 영화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상매체를 통한 일반인의 불교인문과 수행생활을 돕고자 클랑 밸리의 14개 불교단체가 공동으로 협찬하는 이번 'WIFF 2008' 행사는 말레이시아관광청에서 독립입대한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3개 극장에서 진행된다.

'WIFF 2008'은 교육선도용 비영리 행사이며 모든 상영물의 판

만은 전액무료다. 6월14일 저녁 개최식에서는 미국의 여가수 겸 작곡가인 레비나 마이클슨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마이클슨은 최근 앨범대를 졸업하고 3개의 앨범으로 음악평론가들의 격찬을 받은 신예 스타다.

'WIFF 2008'에서 개봉될 영화 중 '치사 1937'은 일본제국의 남경 침공 당시 피난민들에게 비호처를 제공하고 순교한 지란 스님의 자전적 소재로서 한 승려가 지냈던 불굴의 신념과 자비공덕을 소개한다. 또 태국에서 제작한 '암글리말라'는 16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불법에 귀의하여 대오정각에 이르는 정진과정이 속도감 넘치게 전개되는 작품이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에게 묻는 열 가지 질문', 일본의 카즈오 카

에타노 감독이 탁났한 선사의 참여불교와 입신과정을 그린 '한 발 짝마다 평화', '잃어버린 아이들', 리처드 기어와 키아누 리브스의 해설로 서구전법에 크게 기여한 영상 다큐멘터리 '불교의 발견, 삼보귀의'도 상영된다.

특히 한국의 성백엽 감독의 애니메이션 걸작인 '오세암'은 전법효과와 흥행성을 두루 갖춘 전세대용 수작으로 현지 일요일인 이불교학교 등에서 벌써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WIFF 2008'의 참관을 위한 관광단이 꾸려진다. 6월 13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7일 귀국하는 3박5일 일정의 'WIFF 2008' 참관단은 현지에서 영화관람과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하게 된다.(02) 2051-7751

이연태 기자 ylfm@buddhapia.com



5월 15일 '서암종정 복권' 등의 안건을 처리한 제31차 조계종 원로회의에 참석한 원로 스님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했다.

## '서암종정 복권' 총무원에 조사 일임

### 조계종 원로회의 '종헌개정안' 인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가 원로회의 구성요건과 임기를 규정한 관련 종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원로회의는 5월 15일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해 23명의 원로의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제31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중앙총회에서 통과된 '종헌' 개정안을 인준했다.

이날 종헌 개정안은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랍 45년, 연령 70세, 법계 대종사인 원로 비구로 구성하고 의원임기는 10년으로 하

며, 증인할수 없다" 등의 내용이다.

원로회의는 이어 지난 3월 임시중앙총회에서 동의한 도문, 지중, 명선, 월서, 혜승, 정무, 현해, 고우, 법흥, 무진장 스님 등 10명의 원로의원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심사를 갖

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원로회의는 또 '원로의원 현해, 도문, 명선 스님 등이 제정한 서암종정복권 청원'을 안건으로 채택해 논

의했다. 이날 원로의원들은 "원로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총무원에 일임해 관련 조사를 진행토록 하고 보고를 받은 후 적절한 역할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원로의장 종산 스님은 이날 "총무원장 사서실장 심경 스님이 은사인 원로의원 정무 스님에게 지극한 효심을 보이는 등 귀감이 되었다"며 '원로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이날 회의 보시금 등을 사이클론과 지진피해를 입은 미얀마와 중국 돕기 성금으로 총무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성우 기자

## "지진피해 中에 부처님 자비를"

### 조계·천태종, 미얀마 이어 중국 돕기 모금운동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구호성금 모금에 나선 조계종과 천태종이 이번에는 중국 지진피해에 대해서도 성금모금운동에 돌입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5월 15일 중국 쓰촨성 대지진 참사로 인해 무수한 인명이 희생된 것과 관련, 대변인 명의의 애도메시지를 발표하고 "중국 쓰촨성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상처를 딛고 고난을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6월 31일까지 벌이고 있는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돕기 성금모음'과 함께 '중국 지진 피해돕기 성금모음'도 공동추진한다고 덧붙였다.(사고 참조)

지난 5월 8일 조계종 분말사에 대한 재난구호 성금모음 공문시달을 시작으로 각 사찰 및 단체들의 성금도 답지하고 있다. 15일 개최된 원로회의에 참석한 원로스님들은 미얀마 태풍 참사자와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자에 대한 애도의 묵념

을 하였으며, 즉석에서 성금 1150만원을 총무원에 전달했다. 또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6일 5000만원의 성금을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한편 천태종(총무원장 정산)도 15일 "수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번 대참사에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 천태불자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애도문을 발표했다. 14일 미얀마 대사에게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천태종은 전국 300여 사찰에서 미얀마 성금모금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에 들어갔다.

성금접수처=우리은행(예금주 나 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 1005-101-209041 김성우 기자

## 미얀마불교대책위 "미얀마 군정 규탄"

사이클론으로 초토화된 미얀마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군정의 정보공개 거부 등이 비난받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미얀마불교대책위원회도 이런 상황에 발맞춰 5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수도 양곤과 중남부 지방을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최소 1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대란을 맞고도 군정은 자국민들의 목숨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체제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맹비난했다.

불교대책위는 "미얀마 군정이 전면적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강진 기자

##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개최

### 6월 9일부터 日북해도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불교 우호 증진을 위한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일본 홋카이도(北海島)에서 열린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지관)와 일·한 불교교류협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조동종 대본산 중앙사에서 '제29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선(禪)과 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29차 대회에서 한국 측에서는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주제 발표한다. 본대회는 10일 오전 9시

김성우 기자

30분 홋카이도 프린스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며, 학술세미나에 이어 양국 사무총장의 공동선언문 발표로 오전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는 중앙사 본당에서 법요식이 봉행된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위원단은 지난 5월 8일 대화협약차 방한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한일불교협회 이사장 홍파 스님, 사무총장 남정 스님, 일본 평간사 집사장 노자와 류코 스님, 원만사 주지 하세 다쿠도 스님 등이 함께했다.

김성우 기자

## "광우병 쇠고기 협상단 정부는 즉각 파면하라"

### 불교인권·평화연대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교인권연대와 불교평화연대가 5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협상단을 파면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협상단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절차에 문제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대통령이 국민들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에 의해 정책 실현이 저지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말을 믿게끔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강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 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http://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에이티브이 NAVER 7년연속 마미로봇 최우수브랜드

## 금강대 원각도서관 개관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가 3년 여의 공사 끝에 원각도서관을 완공하고 5월 27일 개관식을 갖는다.

금강대 원각도서관은 112만 평방미터(3만7천평)의 대지에 연면적 1만2천 평방미터(3650평) 5층 규모다. 김성우 기자

#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해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도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부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

**원불봉안, 탕화, 수미단, 닻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http://www.abccenter.or.kr) ■ E-mail : [abccenter123@hanmail.net](mailto: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